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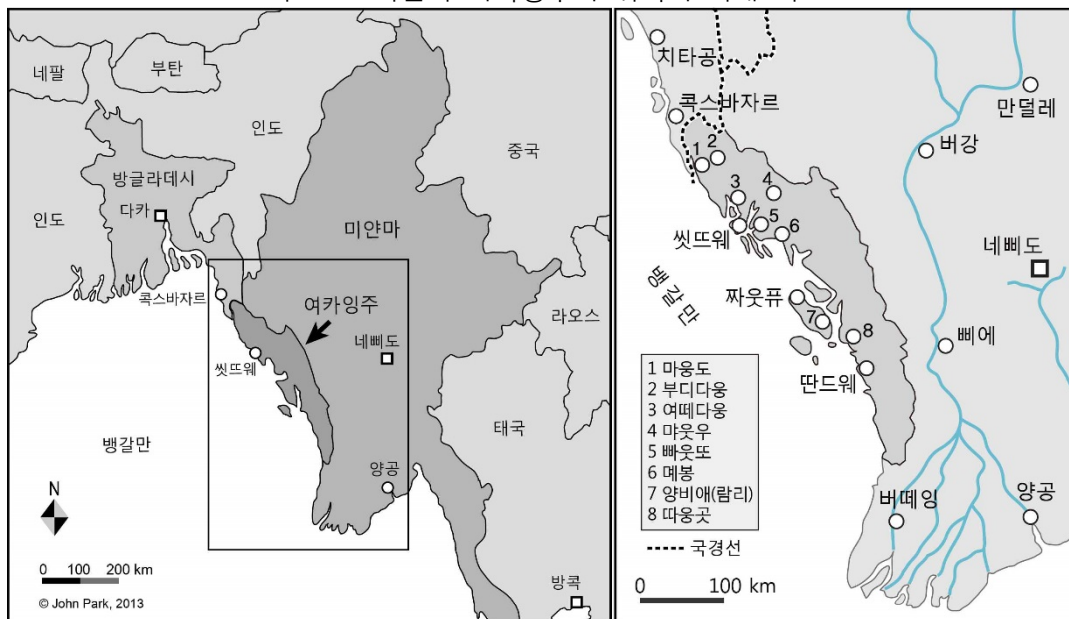
미얀마 여카잉 무슬림(로힝자)의 딜레마 재고 (再考): 종교기반 종족분쟁의 배경과 원인

박장식(부산외대 미얀마어과 교수/동남아지역원 원장)

I. 들어가기

미얀마의 마지막 콩바웅(Konbaung) 왕조시대에 두 번이나 왕도가 되었던 어머니뿌라(Amarapura, 팔리어로 ‘불멸의 도시’의 의미)에는 따운떠망(Taungthaman) 호수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전장 1.2km에 달하는 우베잉(U Bein) 다리가 있다. 민동(Mindon)왕(재위 1853-78년)이 1857년 만달레(Mandalay)로 천도하면서 어머니뿌라의 왕궁에 사용했던 티크 기둥을 대거 재활용했고, 그 남은 목재들을 모아 당시 어머니뿌라의 시장(묘웁 Myowun)이었던 우베잉이 다리를 건설하였다. 이 다리가 유명세를 타고 관광객의 필수 방문코스가 되었던 것은 현재까지 거의 200년을 거뜬히 버티고 있는 미얀마 티크의 뛰어난 재질에 있다. 그런데 이 다리의 건설을 주도했던 우베잉은 민동왕의 신임을 받았던 ‘무슬림’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도 1> 미얀마 여카잉주의 위치와 확대 지도



미얀마에서 이슬람교의 영향이 가장 강했던 여카잉(Rakhine) 지역은 불교도 여카잉족이 독자적인 왕국을 유지해왔으나, 1784년 버마족 콩바웅 왕조의 보도퍼야(Bodawpaya) 왕(재위 1782-1819년)에 의해 정복되면서 버마족의 세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무슬림 우베잉을 중용했던 민동왕은 상좌불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이슬람교도 보호하

여 그 시기에 만달레에는 여러 모스크가 건립되기도 하였다(Berlie 2008: 65). 물론 무슬림의 수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상좌불교 왕국에 무슬림이 아무런 문제없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미얀마 전통시대의 종교 혼합주의의 특징으로 여길 수 있다. 상좌불교의 색채가 강하게 물들어있는 미얀마에서 타종교와의 공존이 전통시대에 존속했다는 점은 오늘날 여카잉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좌불교도(여카잉족)와 여카잉 무슬림(로힝자)과의 극심한 유혈 사태를 살펴볼 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12년 5월 28일 여카잉 남부지역인 양비애(Yanbye)에서 여카잉 여성이 무슬림 남성 3명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웅곳(Taungok) 지역의 여카잉 주민들이 가해자가 탄 것으로 보이는 버스를 공격하여 10명의 무슬림을 살해하고, 무슬림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도 여카잉족과 무슬림들과의 유혈 충돌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양자간의 충돌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6월 10일에 떼인세잉(Thein Sein) 대통령이 여카잉 주의 췌뜨웨(Sittwe), 마웅도(Maungdaw), 부디다웅(Buthidaung), 여떼다웅(Rathedaung)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급기야 10월에는 여카잉주의 주도 췌뜨웨를 비롯하여 마웃우(Mrauk-U), 빠웃또(Pauktaw), 메봉(Myebon), 짜웃퉼(Kyaukpyu) 등지의 무슬림 거주지가 여카잉족의 집단 공격을 받아 전소되었고, 일부 무슬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방글라데시 국경지대로 몰려가거나 보트를 타고 바다로 탈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992년 대규모의 여카잉 무슬림들의 탈출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국경지대에는 이미 2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서 3만 명 정도가 열악한 시설의 난민캠프에 수용되어있으며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약 2백만 명의 인구로 추산되는 로힝자족은 미얀마에 80만 명이 거주하며, 중동 지역에 약 50만 명, 말레이시아에 약 5만 명이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보트를 타고 저 멀리 호주에 도착한 난민들도 있다(HRW 2009: 6).

이번 사태 직후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경지역의 육로와 해로를 폐쇄하고 난민 유입을 철저히 봉쇄하였으며 유엔과 구호단체의 활동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HRW 2012a: 6-7). 세계 언론에 알려진 대로 해상으로 탈출하여 거의 탈진한 무슬림들이 타고 있는 보트를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가 바다로 되밀어 넣는 장면이 알려지면서 방글라데시정부의 비인도적인 처사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생겼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6월 이후 10월에 다시 발생한 유혈 사태로 가옥 2800여 채가 전소되었고, 사망자가 112명(미얀마정부는 나중에 64명으로 수정하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이 넘으며,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다(HRW 2012b).

미얀마의 정치구도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라면, 수많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얀마연방에서 종족분쟁이란 그냥 자주 걸렸다 나았다 하는 마치 감기와 같은 것으로 가볍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고, 쉽사리 악화되지도 그렇다고 잘 낫지도 않는 만성적인 지병으로 여길 수 있다. 그 정도로 미얀마 내에서 벌어지는 종족간의 갈등은 일상화되어 있는 고질적인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통하여 2011년 3월 새로운 민간정부가 출범하여 장기간에 걸친 군부지배의 종식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미얀마로 집중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여카잉 주의 사태는 도약을 준비하는 미얀마의 발

목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인다. 세계 언론이나 비정부기구에서는 소수종족인 로힝자에 대한 인권 유린 또는 학대와 같은 표현으로 사태 개입에 미온적인 미얀마 정부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카잉 무슬림 혹은 로힝자에 대하여 불법이주자로 단정하고 있는 미얀마정부와 그것을 과거 목시적으로 지지해왔던 여카잉 주의 다수종족인 여카잉족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로힝자를 미얀마의 원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만의 역사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외부 관찰자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우선, HRW(Human Rights Watch)를 중심으로 한 비정부기구의 활동에서 엿보이듯이 강자의 약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학대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HRW 1996, 2009, 2012a; Maudood 1987; Ragland 1994; Smith 1991). 이에 비해 학술적인 여카잉 지역전문가들은 대개 여카잉족과 여카잉 무슬림의 주장에 대해 편향적 치우침이 없이 미얀마의 근대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민국가 경계 속의 다수와 소수의 분쟁(ethnic conflict), 즉 버마족 중심의 미얀마정부 혹은 여카잉족이라는 다수집단과 로힝자라는 소수집단의 대립이라는 보편적인 입장(Berlie 2008; Charney 1999; Yegar 1972; 박장식 2004)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의 사태를 지켜보면 과거 여카잉 무슬림과 미얀마정부 간의 충돌에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불교도와 무슬림으로 대변되는 종교기반의 종족분쟁(religio-ethnic conflict)의 양상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 게다가 분쟁의 양태도 군부의 무력 탄압이 아닌 두 집단 상호간의 무자비한 학살과 방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에서 버마족 주도의 국가 경영에 대한 반발로 파생되었던 꺼잉족(카렌족, Karen)의 강력한 민족주의운동이 이제는 해체 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던 것도 꺼잉족 리더십을 둘러싼 종교기반의 종족성(리더십에 있어서 꺼잉족 불교도와 기독교도의 갈등)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박장식 1995: 276; 이상국 2008: 135-136).

여카잉 전문 역사학자 차니(Michael Charney)는 “여카잉 불교도(그곳 무슬림들은 이들을 ‘마그’(Magh 또는 Mug)라 부른다)와 여카잉 무슬림(자칭 로힝자)은 같은 여카잉 지역의 역사와 고고학적 유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이 자신들의 근거지임을 증명하고 있다”(Charney 1999: 2-3)고 한다. 그는 또한 이슬람교의 색채가 진한 인도 뱅갈지역과 상좌불교 전통이 뿌리내린 미얀마 중앙평원과의 교차로에 위치한 여카잉 지역은 두 공동체의 운명적인 ‘수렴의 공간’(where Jambudipa and Islamdom converged)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연히도 현재 불교와 이슬람교가 어우러진 ‘극동의 팔레스타인’(Forchhammer 1892: 2)이 되어버린 여카잉 지역의 정치사를 무슬림과의 접촉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두 집단을 각각 대표하여 표방하고 있는 극단적인 주장을 검토하여 로힝자의 실체를 고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여카잉 지역의 종교기반 종족분쟁의 주요 원인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II. 수렴의 공간: 배경과 역사

미얀마연방의 북서쪽에 자리한 여카잉주는 서쪽으로 뱅갈만, 동남쪽으로 길게 여카잉 산맥, 북쪽으로 방글라데시의 접경지대로 적어도 18세기 이전까지는 다수종족인 버마족

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서쪽 뱅갈 만과 접해있는 연해 지역이라는 점에서 미얀마의 중앙평원 지역보다는 오히려 고도의 문명 세계를 지녔던 인도 특히 북쪽 뱅갈 지역과의 접촉이 더 활발하였다. 따라서 여카잉 지역은 오랜 역사와 독특한 문화 그리고 동남아 역사학자 혹은 미술사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많은 비문과 고고학적 유물들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동남아에 전파된 주요 종교인 불교(대승, 상좌, 밀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비롯하여 전통신앙인 정령 숭배(animism)가 여카잉에 존재한다. 여카잉의 교역도 역사적으로 대륙부뿐만 아니라 도서부에도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지도 2> 여카잉 연안대의 세부구역도



여카잉 지역의 최초 정착자들이 누구였는지 여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이 지역에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소수종족인 친(Chin), 묘(Mro), 삭(Sak) 등일 가능성은 높다. 현재 이 지역의 다수종족인 여카잉족은 버마족(Bama 혹은 Burman)의 이주에 앞서 9세기경 여카잉 산맥을 넘기 시작하여 11세기 중엽 더나워디 구역을 지배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Gutman 1976: 17). 여카잉족의 초기 정착과 관련하여 전승되고 있는 설화에 의하면, 더나워디에 거주지를 정한 마라유(Marayu)라는 여카잉족의 영웅적 조상이 그곳 묘족의 족장 딸과 혼인하고 친족(Chin)으로 여겨지는 악마(Bilu)의 땅을 정복하여 ‘여카잉’ 국가

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utman 2001: 5).

17세기부터 여카잉 지역에 무슬림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지만, 그 이전 시기에 있어서도 무슬림의 도래에 관한 이야기는 존재한다. 9세기 이전에도 극소수의 무슬림들이 여카잉 궁중의 전문적인 직종(필사자, 환관, 왕궁수비대 등)에 관여했고, 8-9세기 경 무슬림 상인들이 조난을 당하여 오늘날 양비아섬인 라마위디 구역에 당도하자 더냐위디에 정착하도록 했다는 여카잉 전승도 존재한다(Charney 1999: 147).

더냐위디와 웨팔리 지역에 4세기 중엽부터 8세기 중엽까지 약 400년간 소위 ‘짚드라 왕가’가 지배한 왕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냐위디와 웨팔리는 동남아 타지역(가령, 푸난(Funan), 참파(Champa), 스리비자야(Srivijaya))에서도 나타나는 교역에 중점을 둔 전형적인 ‘인도화된 왕국’으로 여겨진다. 인도와의 접촉이 빈번하였던 이유로 인도문화 유입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종교적 색채는 대승불교가 압도적이면서도 당시의 고고학적 유물(특히 굽타시대의 것과 유사한 경화, 8세기의 힌두양식의 예술품 등)을 살펴보면 힌두교의 흔적도 많이 엿보인다(Collis and San Shwe Bu 1925: 35-37). 붓다가 생전에 500명의 승려를 이끌고 더냐위디로 건너와 짚드라수리아(Candrasuriya)왕에게 불교를 전파하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붓다의 형상인 마하무니(Mahamuni) 불상을 제작하여 안치했다는 전승은 이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주변 왕국들이 그 불상을 가져오기 위해 여카잉 정복의 동기가 되었던 위대한 불교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Gutman 2001: 6-7).

8세기 중엽부터는 오늘날 미얀마의 중앙평원으로 티벳-버마어족이 이주해오고 9세기 경에는 그 일부가 여카잉 산맥을 넘어오게 되자 웨팔리를 중심으로 하는 여카잉 지역의 기존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삼바왓(Sambawak 또는 뽀사 Pyinsa, 1018년), 뻬에잉(Parein, 1118년), 크릿(Hkrit, 1142년) 및 라웅젯(Launggret, 1237-1404년) 등 레묘강 유역의 군소도시를 중심으로 왕국이 차례로 성립하였다(Gutman 2001: 14-15; San Tha Aung 1979: 109-110). 이른바 레묘 왕조의 주역은 더냐위디나 웨팔리의 대승불교와 힌두교의 색채를 표방하던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 정착한 여카잉족이었고, 그들은 이제 뱅갈만이 아닌 동쪽의 버마족과 잦은 접촉을 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접촉의 결과로 대승불교의 색채가 옅어지고 상좌불교가 여카잉 지역에 강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만들어졌다(Collis and San Shwe Bu 1925: 37-38). 뱅갈 지역이 아닌 동쪽 지역과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버강왕조의 어노여타(Anawrahta, 재위 1015-78년)왕이 여카잉을 침범하여 마하무니 불상을 탈취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Harvey 1925: 29; Phayre 1967: 46). 이때부터 여카잉 지역은 일시적으로 버강왕조의 세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1404년 1차 어와왕조의 버마족 밍가웅(Mingaung)왕의 왕자가 라웅젯을 점령하자 그곳 민소몽(Minsawmun, 재위 1404-1433년)왕은 뱅갈 술탄국의 고르(Gaur)로 피신하였다가 뱅갈 술탄 잘랄우딘(Jalal ud-Din)의 후원으로 1430년에 라웅젯으로 복귀하여 왕권을 회복하지만, 점성술사의 충고를 받아들여 1433년 왕도를 마웃우로 옮겼다(Gutman 2001: 15; Harvey 1925: 139). 그 이후 1530년까지 마웃우는 정치적으로 뱅갈에 종속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민소몽을 계승한 알리칸(Ali Khan, 재위 1434-1458년)은 뱅갈 지역인 라무(Ramu)를 점령하고 치타공까지 진격하였고, 알리칸의 계승자인 바소부(Basawpyu 또는 Kalima Shah, 재위 1458-1481년)는 1459년 치타공을 점령하였다(Van Galen 2008: 35).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볼 때, 16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마웃우 왕조는 뱅갈 지역의 정치적

정세에 따라 종속과 독립의 지위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 것 같다.

마웃우 왕조는 밍빙왕(그의 이슬람 명칭은 Zabauk Shah, 재위 1531-1553년)이 1546년 동부 뱅갈을 정복한 이후부터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에 걸쳐 전성기를 누렸다. 여기에는 포르투갈인의 도래와 뱅갈 지역의 내전이라는 두 요소가 크게 작용되었던 것 같다(Collis and San Shwe Bu 1925: 41-42). 마웃우 왕조에서는 16세기 뱅갈만에 나타난 포르투갈인에게 거류와 교역 허가를 내주고 그 대신 항해와 근대식 무기 및 축성 기술을 이용하였다. 밍빙왕은 잦은 버마족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들을 활용하여 마웃우를 요새화하였고, 군대를 양성하고 막강한 함대를 구축하였다. 마웃우는 이제 불교도와 힌두교도 외에도 포르투갈인과 무슬림을 포함하는 범세계적 도시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고 그가 주도한 많은 사원의 건축에도 이러한 외부 요소들을 적극 반영하였다. 도시의 팽창에 따른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뱅갈 연안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노예사냥 및 뱅갈과 미얀마의 상하부 지역을 비롯하여 일부 동남아 지역과의 교역에도 포르투갈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7세기에 걸친 뱅갈 지역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여카잉의 노예사냥은 근대 초기 여카잉 지역의 무슬림 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Charney 1999: 150).

용병을 동원하여 왕위를 찬탈한 나라빠띠(Narapati)가 1638년 재위에 오르면서 여카잉의 세력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마웃우를 지탱하던 포르투갈인, 무슬림, 몽족 등 다양한 종족집단들도 더 이상 마웃우의 왕에게 강력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무갈 제국의 세력이 포진한 동부 뱅갈 지역 및 한때 점령했던 하부 미얀마를 지킬 수가 없었다(Collis and San Shwe Bu 1925: 44-46). 포르투갈인의 영향력도 17세기 초에 뱅갈만에서 상업적 이익과 더불어 자바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노예 구매에 관심을 가졌던 네덜란드동인도회사(VOC)의 등장으로 줄어들었다(Thant Myint-U 2006: 75-76). 게다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왕위를 둘러싼 잦은 내전으로 마웃우 몰락은 더욱 가속되었다(Gutman 2001: 24).

불교와 이슬람교 양식을 혼합하여 독특한 문화를 창출했던 마웃우는 마하무니 불상의 신비한 영력을 두려워했던 콩바웅 왕조의 보도퍼야에 의해 1784년 정복되었다(Harvey 1925: 267). 퇴락의 길을 내리 걸었던 여카잉 지역은 결국 중앙평원의 상좌불교도 국왕의 정치적 확장 이념에 희생되었고 여카잉 지역의 지대한 불교 전통이며 여카잉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그 유명한 마하무니 불상도 마침내 보도퍼야의 새로운 왕도인 어머니뿌라로 옮겨졌다(Aung-Thwin and Aung-Thwin 2012: 164). 이로써 여카잉 지역은 오랜 기간 접촉을 해왔던 서쪽의 뱅갈만에서 방향을 틀어 동쪽의 버마족 세력권에 완전히 놓이게 되었고, 상좌불교를 신봉하는 중앙평원의 전통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또한, 1826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면서 여카잉 지역의 중심이 더나워디 구역에서 깔라당강의 하구에 위치한 싯뜨웨로 바뀌자 이 지역은 영국의 미얀마 식민정부의 단순한 행정구역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일정한 자치권이 허용되어 간접지배라는 형식의 정치구도 속에 놓였던 변방(frontier area)이 아닌 영국 관리의 직접적인 행정체도가 적용되는 중앙행정 구역에 놓였다.

1948년 독립 이후 여카잉 지역은 소수종족 자치주로 출범하지 못하고 버마족 중심의 행정구역(division)으로 출범하였는데, 이미 여카잉족이 버마족과 구별되는 소수종족

이라는 인식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여카잉 지역에 비록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변방지역의 소수종족 자치주(state)의 지위를 갖는 여카잉주가 탄생한 것은 미얀마 사회주의연방이 출범한 1974년의 일이지만, 행정기구의 수장들은 모두 버마족의 인물이 임명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다른 변방지역에서 소수종족 반군 활동이 더욱 격화되자 미얀마군부는 1950년대 무자히드 반군 활동을 전개했던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의 여카잉 무슬림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에서 여카잉 지역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카잉족과 무슬림의 대립은 전혀 새로운 양상인 것이다.

III. 로힝자 정체성의 논쟁

앞에서 살펴본 여카잉 연안대를 둘러싼 역사는 의외로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간단히 ‘하나의 공간, 두 집단의 공존’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두 집단이란 9세기 혹은 10세기 이후 이주해온 것으로 여겨지는 ‘여카잉족’과 13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벵갈 지역에서 건너온 ‘여카잉 무슬림’을 의미한다. 벵갈 무슬림이 여카잉 연안 일대에 자의든 타의든 정착하게 되었던 역사적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 집단은 여카잉 지역에서 시간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삶의 터전을 공유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19세기 이전의 여카잉 역사를 통하여 정작 오늘날 이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로힝자’(Rohingya)에 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여카잉 무슬림을 로힝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19세기 초반까지의 역사 속에서 그 용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로힝자족의 역사적 존재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카잉족이자 역사학자인 에창(Aye Chang)은 제1차 미얀마-영국 식민지 전쟁(1824-26년) 후 체결된 전후보상조약에 의해 여카잉 지역이 영국에게 양도됨에 따라 치타공 등지에서 오늘날 방글라데시의 국경지대와 인접한 여카잉 서북부 지역의 마유강 유역에 이주, 정착한 이른바 ‘치타공 출신’(Chittagonians)의 후손이 바로 ‘로힝자’이며 1950년대에 이르러 이 지역의 무슬림 지식인들이 스스로 로힝자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Aye Chang 2005: 397). 또한, 그는 여카잉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여 자의적으로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오늘날 로힝자족의 원천인 된 것으로 여겨지는 마유강 유역의 치타공 출신 벵갈인, 마웃우 시대의 무슬림 후손, 오늘날 싯뜨웨와 양비아(람리)섬에 주로 거주하는 까망(Kaman)이라 불리는 무슬림 용병의 후손, 미얀마 중앙평원의 메두(Myedu) 지역 출신 무슬림이 그것이다(Aye Chang 2005: 397). 그의 주장에 따르면 로힝자는 앞 장에서 살펴본 여카잉 연안대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볼 때 다른 무슬림과는 달리 적어도 1826년 이전에 정착의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 ‘치타공 출신 벵갈인’이며, 식민주의시대의 시작과 함께 농업 노동을 위하여 여카잉 지역으로 넘어온 일시적 이주자에 속하는 것으로 미얀마의 원주민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힝자의 어원을 중심으로 로힝자의 정체성을 추적했던 우킨마웅소(U Khin Maung Saw)도 에창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는 북부 여카잉 지역을 무슬림주로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당시의 동파키스탄에 합류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1940년대 말부터 활동

했던 무슬림 반군집단 무자히드(Mujahid)의 동조를 얻어내기 위해 적기(Red Flag) 미얀마공산당(Communist Party of Burma)이 그들에게 만들어준 집단 명칭이 바로 로힝자이며 무자히드를 이끌었던 카심(Mir Kasim)과 그 추종자들은 모두 벵갈 지역에서 넘어온 불법이주자들이라고 규정하고, 그 무자히드 반군들이 스스로를 로힝자라고 불렀다는 것이다(Khin Maung Saw 1993: 90, 98). 따라서 그도 역시 예창과 마찬가지로 로힝자는 여카잉 무슬림이 아닌 19세기 초 영국동인도회사의 여카잉 진출시기부터 건너온 불법이민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맥락은 여카잉 지역이 원래 불교도 여카잉족들의 터전이었으며 이후에 무슬림이 이주해온 것으로 여카잉의 주인은 여카잉족이라는 인식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아래의 글처럼 일반적으로 불교도 여카잉족들의 저술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다.

부처의 입적 후 250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여카잉족들은 불교가 전파된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불교 신앙을 유지해왔다(San Tha Aung 1979: 108).

한편 두 개의 기설립된 기구를 통합하여 누를 이슬람(Nurul Islam)을 지도자로 하는 새로운 아라칸로힝자민족기구(ARNO, Arakan Rohingya National Organization)가 1998년에 설립되어 해외 무슬림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활발한 로힝자 권익을 대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Berlie 2008: 60). 아세안 가입국가 중에서 1992년 3월 미얀마 군사정부의 로힝자 문제 처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한 말레이시아에서 지난 2012년 9월 17일 ‘로힝자의 곤경: 그 해법’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도 로힝자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ARNO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ARNO는 에썬(Aye Kyaw), 예창 및 우킨마웅소로 대표되는 여카잉족 편향의 주장을 반박하고 로힝자의 미얀마 정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ARNO의 주장은 최근 비정부 인권감시기구 및 재미 또는 재유럽의 이슬람 활동가들의 출판물,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하여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는 재미 로힝자 인권활동가 하비브 씨디퀴(Habib Siddiqui)이다. 그는 특히 우킨마웅소가 제기했던 로힝자의 정체성에 관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던 다소 거친 문체의 일련의 글(대표적인 것으로는 Siddiqui 2007; 2011; 2012)을 통하여 로힝자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씨디퀴 주장의 핵심은 로힝자라는 용어는 여카잉을 의미하는 아랍어 ‘Rohang’의 고대 명칭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카잉 무슬림’을 지칭한다는 것이다(Siddiqui 2007: 1). 17세기의 유명한 마웃우 시대의 왕궁 시인이자 수비대장이기도 했던 샤 알로알(Shah Aloal)은 당시의 그 왕국을 ‘Kingdom of Roshang/Rosango’라고 불렀으며, 치타공 방언에서는 ‘sh’ 소리가 ‘h’로 대체되어 여카잉이 ‘Rohang’으로 발음된다고 한다(Siddiqui 2012: 8-9).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1795년 미얀마 어와왕조를 방문했던 영국 특사의 주치의였던 부카난(Francis Buchanan)의 기록에서 로힝자의 용어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미얀마제국(Burman Empire)에서 사용되는 세 개의 방언을 소개하려 하는데, 모두 인도어에서 파생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 첫 방언은 여카잉(Arakan)에 오랜 기

간 정착해 살고 있으며 자신들을 여카잉 원주민의 의미로 루잉가(Rooinga)라 하는 무슬림(Mohammedans)이 사용하는 말이다(Buchanan 2003: 55).

그리하여 여카잉 무슬림을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여 인식된다는 예창의 주장과는 달리, 씨드퀴는 로힝자를 ‘여카잉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총칭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그는 여카잉 지역은 7세기 이후부터 미얀마의 중앙평원보다 동부 뱅갈과 활발한 접촉을 이어왔고, 8-9세기 이후로는 동부 뱅갈을 통하여 여카잉에 이슬람교의 전파가 시작되었으며 17세기경에는 공고화되었다고 한다. 특히, 마웃우 시대 중에서 1430년에서 1531년까지는 무슬림이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는 당시의 지배자들이 이슬람 상징과 이슬람 신앙고백인 칼리마(Kalima)가 삽입된 경화나 메달을 사용했던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다(Siddiqui 2012: 3-4). 마치 무슬림이 특정 시기에 걸쳐 여카잉 지역에서 정치세력을 유지했던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엿보이듯이 로힝자의 전형적인 역사관이다.

15세기에 이르러 많은 무슬림 왕들이 여카잉(Arakan)을 다스렸는데, 그때가 이 지역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로힝자 무슬림은 여카잉의 정치권에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Razzaq & Haque 1995: 15).

IV. 갈등과 분쟁의 주요 원인

식민지 지배가 종식되고 신생독립국가가 탄생한 동남아의 새로운 토양에서 과거에 이주해온 외래동양인들에 대한 영주 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이른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카잉 지역에서 오랜 세월 속에서 공존의 역사를 보냈던 무슬림들과 여카잉 불교도는 화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의 깊은 골에 떨어지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1947년 1월 4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던 미얀마연방은 동남아에 속한 국가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이질적인 종족집단을 포섭한 국가가 되었다. 오늘날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미얀마의 원주민으로 135개의 종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대체로 영국의 식민지시대에 유입된 외래동양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땅에 오랜 기간 정착하여 살았던 중국인과 인도인의 혈통을 물려받은 후손들은 국민의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원주민의 개념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전체 인구의 89%가 신봉하는 상좌불교의 전통이며, 무슬림과 관련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근대 이전의 여카잉 지역에서 상좌불교가 현재까지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불교 전통주의자’들은 종교는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인간을 집단화하는 데 작용하는 기본적인 구성 원리이자 결합체”(Smith 1996: 12) 중의 하나라는 근원주의자(primordialist)들의 주장을 공유하며, 18세기 후반까지 버마족 중심의 역사가 전개되었던 중앙평원과는 다른 공간과 시간을 가졌던 여카잉 지역도 상좌불교도가 당연히 주인의 노릇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 속에 오랜 기간 정주해왔던 무슬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방이나 외부의 이주자라는 인식 속에 갇혀

있다.

<표 1> 영국 식민지 정부의 Akyab(현 시트웨) District 인구조사.

인종	1872년	1901년	1911년
힌두교도	2,655	14,455	14,454
무슬림	58,255	154,887	178,647
버마족	4,632	35,751	92,185
여카잉족	171,612	239,649	209,432
산족	334	80	59
고산족	38,577	35,489	34,020
기타	606	1,355	1,146
합계	276,671	481,666	529,943

출처: Smart(1917: 86)

그러나 중앙평원의 버마족 국왕들은 상좌불교의 권위와 전통을 적극적으로 확립시킨 반면, 여카잉 지역의 왕들은 다른 종교에 대하여 특정 종교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데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여카잉 연안대에 있어서 상좌불교 정통성의 구현에도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Charney 1999: 5). 이러한 종교와 관련된 여카잉 지역의 독특한 개성은 18세기 후반 버마족의 정복 이후 중앙평원의 상좌불교 전통에 흡수되면서 희석되었다. 또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버마족과 점차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도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본격적으로 이식된 버마족의 전통이 뿌리를 내리면서 여카잉 지역에 있어서 다수종족이었던 여카잉족의 의식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은 식민지 시대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표 1>에서 여카잉족의 인구가 1901년 239,649명에서 1911년 209,432명으로 십년 동안 약 13% 정도 오히려 감소한 사실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영국 식민정부의 관보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카잉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수가 격감하였다. 버마어(버마족의 언어)의 확산에 따른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여카잉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버마어가 사회에서 권위를 갖게 하고 현실 생활에서 유용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구수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카잉족은 사실상 사라지고 있으며 또 이후의 10년 뒤 또는 그 10년 뒤의 조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시기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Smart 1917: 88).

여카잉족의 정체성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하면서 여카잉 무슬림의 입지도 좁아지게 되었다. 불교도와 무슬림의 수렴의 공간에서 여카잉족의 버마족(Bamar, Burman)

중심의 상좌불교 전통의 확립이라는 기존 질서의 변화는 그곳에 공존의 시간을 보냈던 무슬림에 대한 시선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결국 그 지역의 주체인 여카잉족의 위기의식이 점증하는 무슬림의 인구에 대한 견제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여카잉 지역의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미얀마연방의 성립 이후 영토의 경계 개념이 확립되면서 국민 구성에 관한 일련의 정책들이 미얀마가 지니는 특수한 역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77년의 이른바 나가밍(Nagamin) 프로그램과 1982년의 미얀마시민권법의 개정이었다. 사실 미얀마의 독립 직후부터 발생했던 정부와 소수종족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변방지대는 무정부 상태에 놓였다. 게다가 1940년대에 인도인들에 대한 폭동으로 인하여 인도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원주민이 아닌 정착자에 대한 규제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군부지배가 종식된 이후 새로운 정부의 수장으로서 여카잉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였던 떼인세잉 대통령조차도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UNHCR의 주도로 로힝자족은 타국이나 난민캠프로 보내는 것이다”(AFP 2012)고 얘기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미얀마 민주화의 기수로 여겨지는 아웅산수찌 여사도 로힝자족의 문제에 대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만 강조하면서 사태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Bajoria 2012; The Economist 2012).

여카잉 지역에서도 이미 독립 이전인 1942년에 발생한 종교 폭동으로 많은 인도인들이 여카잉을 거쳐 인도로 귀환했고, 1948년에도 여카잉족과 로힝자 무슬림의 충돌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일부는 인도로 돌아갔다. 미얀마 독립 이후 일시적으로 여카잉 무슬림들의 신분이 인정받는 듯 했으나, 1962년 네윈 장군의 쿠데타 성립으로 로힝자 무슬림의 사회적 활동은 거의 제한을 받기 시작했다. 1974년 이른바 버마식 사회주의의 이념을 채택한 미얀마 정부는 인도, 중국 및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유입되는 불법이민을 막기 위하여 긴급이민법을 제정하였다. 모든 미얀마 국적자들은 국민등록증을 발급하여 항시 휴대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여카잉 무슬림들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였고 대부분 그 발급을 거절하였다고 한다(HRW 1996: 11). 1977년 미얀마 정부는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과 외국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색출하기 위하여 미얀마 내에 거주하는 각 개인을 조사한다”는 이른바 나가밍(Nagamin)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1978년 5월경 약 20만 명에 이르는 로힝자 무슬림들이 방글라데시로 긴급히 피난하였다(Smith 1991: 241). 그들은 방글라데시 국경도시 콕스바자르 이남 지역의 난민캠프에 분산되어 현재에도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1982년에 새로운 미얀마시민권법(Myanmar Citizenship Law)이 제정되어 국민, 준국민, 귀화민 등 세 범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자격을 제1차 미얀마-영국 식민지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82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현재의 미얀마 영토 내에 거주하였던 조상을 둔 주민에게만 부여하였다. 이는 다분히 영국의 식민지 지배기에 대거 유입된 인도인들을 염두에 둔 조항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종족집단의 목록도 제시되었지만, 로힝자 무슬림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신의 조상들이 1823년 이전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조부모 중의 한 명이 외국인이라면 ‘준국민’의 범주에 속한다. 1948년 시민권법에 의해 국민의 자격을 부여받았을지라도 새로운 시민권

의 범주에 속하지 못할 경우에도 역시 ‘준국민’으로 분류되었다. 부모 중의 한 명이 국민이지만 다른 한 명이 준국민이라면 ‘귀화민’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국적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민권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로힝자 무슬림의 수는 극히 적었으며, 현실적으로 1823년 이전 조상들의 거주 사실을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개정된 미얀마국적법의 발효 이후 사실상 불법이주자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전락한 로힝자 무슬림들은 미얀마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에 따라 거주지를 떠나거나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설령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에 있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자녀들의 학교 입학이나 의료 및 공직의 진출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물론, 거주지를 벗어난 이동 금지 등 일상생활에서의 제약도 포함된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로 로힝자 무슬림의 기존 무장 반군집단의 활동도 활성화되고 새로운 무장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9년부터 미얀마 군부의 대대적인 진압 작전이 개시되자 여카잉 지역에서 물러나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유명무실해진 것이 많다. 1991년 미얀마 군부의 대대적인 로힝자족 추방 작전이 재개되었고, 1992년과 1993년에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자족의 미얀마 송환을 강제로 추진하면서 양국의 국경지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후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의 중재로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난민캠프에 머물던 로힝자족의 미얀마 귀환이 결정되었지만, 돌아올 수는 전체 난민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국경지대에는 여카잉 무슬림의 비참한 캠프가 자리잡고 있다(HRW 1998: 11-13).

마지막 원인으로서는 여카잉 지역에서는 종교기반의 종족정체성이 확연히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이제 두 종교집단 간의 대립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과거 여카잉이라는 수렴의 장소에서 볼 수 있었던 불분명했던 정체성이 종교적 담론으로 강화되어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지게 되어 그야말로 이분법의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상좌불교 전통의 미얀마에서는 이른바 근원적 유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종족적 특성이 정치적 대립에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 6월부터 발생했던 양자 간의 충돌사태는 과거와는 달리 여카잉 전역에 걸쳐 확산되었고, 여카잉족의 대대적인 개입으로 대규모의 무슬림 거주지역이 방화되고 상호 학살조차 서슴지 않는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정부군과 무슬림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미얀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었던 불교와 이슬람교와의 종교적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양상을 고려할 때, 여카잉 지역에서의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15세기 이후부터 여카잉 지역의 더나워디 구역에 정착했던 무슬림들은 오랜 기간 여카잉족과 공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있어서 여카잉족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에 포함된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다. 비옥한 더나워디 구역의 농업 생산을 위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위해 동부 뱅갈지역의 무슬림을 강제로 데려왔다는 사실은 여카잉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실제로 불법이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의 폭동에서는 여카잉 전역에 걸쳐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불교도 여카잉족의 무자비한 방화와 살인이 자행되었고, 여기에 맞서 무슬림 공동체들도 여카

잉족의 마을을 급습하는 상호간의 극심한 양상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심각한 점이다. 이번 사태로 무슬림 거주지가 거의 전소되었던 지역 중에서 특히 양비에 섬의 짜웃푸는 로힝자 무슬림과는 역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까망’ 무슬림의 집단 거주지였고, 마웃우의 경우에도 로힝자와 관계없는 거주지였다. 이러한 무슬림들은 종교적으로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을 뿐 일상생활에서 여카잉족과 구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피해자가 되었다.

이번 사태의 결과로 여카잉 무슬림은 로힝자와 같다는 등식이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에창이 주장하듯이 여카잉 무슬림과 로힝자는 다른 범주의 무슬림이며, 로힝자는 주로 주도인 싯뜨웨 및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국경지대로 북부 여카잉 해안부인 마웅도, 부디다웅, 여떼다웅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불법이주자로 규정하였다 (Aye Chang 2005). 하지만, 작년 5월부터 시작된 여카잉족과 여카잉 무슬림과의 분쟁은 단순한 불법이주자(협회의 의미로 로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이나 추방의 문제를 벗어나 공존의 역사를 공유했던 양 종교의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제 여카잉족의 인식 속에는 로힝자는 모든 여카잉 무슬림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었고, 이는 곧 불교도와 무슬림의 대립이라는 종교적 차원의 분쟁으로 변화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실상은 여카잉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기에 이주해왔던 이유로 인하여 모든 무슬림들을 하나의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실상 1940년대 이후의 어법인 ‘로힝자’라는 용어를 여카잉 무슬림 전체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이다.

V. 맺는 글

현재의 여카잉 지역으로 이주해오기 10세기 이전에 여카잉족은 미얀마의 그 어떤 지역보다 앞서 불교(아마도 대승불교 전통)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후 중앙평원과의 접촉을 통해 상좌불교를 신봉하고 있지만, 실상은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포괄하는 인도문화의 영향도 크게 받았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이곳의 불교사원을 방문하면 한눈에 중앙평원에서 볼 수 있는 버마족과 몽족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뱅갈 지역의 문화적 요소가 짙은 독특한 건축양식을 만날 수 있다. 마웃우에 건축된 사원에는 공통적으로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돔과 둥근 천장의 양식 및 부조와 테라코타에 유약을 사용하는 혁신적 기술이 사용되었으며(Gutman 2001: 84),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이슬람 양식이 배어 있는 마웃우의 왕궁도 1629-1637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포르투갈 수사 세바스찬 만리크(Sebastian Manrique)의 기록에서 상세히 살필 수 있다(Collis 1943). 그러한 점에서 여카잉의 마웃우는 캄보디아의 앙코르로 비유할 수 있다.

지형적으로도 여카잉 지역은 동쪽 산지보다 서쪽 뱅갈만과 북부 뱅갈 지방과 연결되기 쉽다. 그러한 이유로 여카잉 연안대는 미얀마의 중앙평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지역 개성이 자리 잡았다. 고고학적 유물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여카잉의 지배자가 불교도인지 무슬림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도 존재하였다. 여카잉 지역의 이같은 특징이 불교도와 무슬림을 수렴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적어도 18세기 후반 이전에는 미얀마 중앙평원과는 상당히 다른 정치·경

제·사회 및 종교 패턴이 존속하였다. 따라서 여카잉 무슬림의 문제는 단순히 영국의 식민주의의 도래와 함께 역어서도 안 되며, 더더욱 로힝자의 용어 문제에 매달려서도 안 될 것이다. 미얀마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여카잉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문제이다.

이제 로힝자의 곤경을 취급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얽혀 있다. 미얀마 정부나 여카잉주의 다수 인구를 점하고 있는 불교도 여카잉족의 입장에서 보면, 로힝자의 대부분은 영국 식민지 지배기를 통하여 이주해왔거나 미얀마 독립 전후의 혼란한 시기에 불법 이주해온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역사적 증거가 제시되어 있고 상당 부분 납득 가능한 자료도 존재한다. 따라서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은 불법체류자이며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의 이면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숨어 있다. 18세기 이후 여카잉 지역에서의 상좌불교 전통의 확립에 따른 여카잉족의 정체성 상실로 인한 위기의식,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 지배와 군부 지배의 폐해성에서 비롯된 미얀마 정부의 국민구성에 관한 편협적인 태도 및 종교기반의 종족정체성의 대두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카잉 지역에서 자생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과거 여카잉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질적인 요소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 원인 제거의 해법은 복잡하고 쉽지 않아 보인다. 해결의 실마리가 어려운 만큼 이제 오랜 기간 군부지배를 종식하고 아직 형식적이긴 하지만 민간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미얀마 정치구도에 여카잉 사태는 또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종족간의 종교적 대립이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제 미얀마도 종교분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미얀마 정부가 변방지역의 소수종족의 반발로 인하여 독립 이후로 국경지역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거의 반세기 이상을 방치해두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생존을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 건너온 사람들을 그것도 몇 세대가 지나 고향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내치는 것은 한 번쯤 고려해볼 일이다.

참고문헌

- 박장식. 1995. “미얀마 까렌족의 분리주의 운동.” 『동남아연구』 4: 255-282.
- _____. 2004. “미얀마 무슬림의 양상과 갈등.” 『아시아지역연구』 7: 275-303.
- 이상국. 2008. “이주민, 비합법성, 그리고 국경사회체제: 태국-미얀마 국경지역 사회체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1): 109-150.
- _____. 2012. “또 다른 식민성: 버마 종족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카렌족의 식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2(1): 1-35.
- AFP. 2012. “Myanmar Moots Camps or Deportation for Rohingyas.” July 12. <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g9uu1BfJAXm4g5bnobdaFjOOXJ3w?docId=CNG.120afc0009d2e67fc7a25839be1e4986.f1>. (검색일: 2012.11.14)
- Aung-Thwin, Michael and Aung-Thwin, Maitrii. 2012. *A History of Myanmar since Ancient Times:*

- Traditions and Transformations*. London: Reaktion Books.
- Aye Chan. 2005. "The Development of a Muslim Enclave in Arakan(Rakhine) State of Burma(Myanmar)." *SOAS Bulletin of Burma Research*. 3(2): 396-420.
- Bajoria, Jayshree. 2012. "Why Delhi Should Care about the Rohingya." *The Indian Express*. November 30. <http://www.indianexpress.com/news/why-delhi-should-care-about-the-rohingya/1038204/0>. (검색일: 2012.12.02)
- Bennison, J. J. 1933. *Census of India, 1931*. Vol. XI. Burma. Part 1. Report. Rangoon: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Burma.
- Berlie, Jean A. 2008. *The Burmanization of Myanmar's Muslims*. Bangkok: White Lotus Press.
- Buchanan, Francis. 2003(1799). "A Comparative Vocabulary of Some of the Languages Spoken in the Burma Empire." Reprint Edition. *SOAS Bulletin of Burma Research*. 1(1): 40-57.
- Cady, John F. 1958. *A History of Modern Burm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Charney, Michael W. 1999. "Where Jambudipa and Islamdom Converged: Religious Change and the Emergence of Buddhist Communalism in Early Modern Arakan, 15th-19th Centur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Chowdhury, A. M. 2006. "Vanga." *Banglapedia: National Encyclopedia of Bangladesh*. http://www.banglapedia.org/HT/V_0014.HTM. (검색일: 2012.10.05)
- Collis, Morris. 1943. *The Land of the Great Image, Being Experiences of Friar Manrique in Arakan*. New York: Alfred A. Knopf.
- Collis, Maurice and San Shwe Bu. 1925. "Arakan's Place in the Civilization of the Bay: A Study of Coinage and Foreign Relations." *Journal of the Burma Research Society*. 15(1): 34-52.
- Forchhammer, Emmanuel. 1892. *Report on the Antiquities of Arakan*. Rangoon: Government Printing and Stationary.
- Grantham, S. G. 1923a. *Census of India, 1921*. Vol. X. Burma. Part 1. Report. Rangoon: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Burma.
- _____. 1923b. *Census of India, 1921*. Vol. X. Burma. Part 2. Tables. Rangoon: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Burma.
- Gutman, Pamela. 1976. "Ancient Arakan (Burma):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Cultural History between the 5th and 11th Centuries." PhD Dissert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_____. 2001. *Burma's Lost Kingdoms: Splendors of Arakan*. Bangkok: Orchid Press.
- Hall, D. G. E. 1958. *A History of Southeast Asia*. London: Macmillan.
- Harvey, G. E. 1922. "The Fate of Shah Shuja, 1661." *Journal of Burma Research Society*. 12: 107-115.
- _____. 1925. *History of Burma: From the Earliest Times to 10 March 1824, the Beginning of the English Conquest*.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 Human Rights Watch (HRW). 1996. *The Rohingya Muslims: Ending a Cycle of Exodus?* 8(9). New York: Human Rights Watch.
- _____. 2009. *Perilous Plight: Burma's Rohingya Take to the Seas*. New York: Human Rights Watch.
- _____. 2012a. "The Government Could Have Stopped This": *Sectarian Violence and Ensuing Abuses in Burma's Arakan State*. New York: Human Rights Watch.
- _____. 2012b. "Burma: New Violence in Arakan State." October 26. <http://www.hrw.org/news/>

- 2012/10/26/burma-new-violence-arakan-state. (검색일: 2012.10.28)
- _____. 2012c. “Burma: Satellite Images Show Widespread Attacks on Rohingya.” <http://www.hrw.org/news/2012/11/17/burma-satellite-images-show-widespread-attacks-rohingya>. (검색일: 2012.10.28)
- Khin Maung Saw, U. 1993. “The “Rohingyas”, Who Are They?: The Origin of the Name “Rohingya”.” *Tradition and Modernity in Myanmar*. Band 3/1. Uta Gärtner and Jens Lorenz, eds. 89-100. Münster and Hamburg: LIT.
- _____. 2011. *Islamization of Burma through Chittagonian Bengalis as Rohingya Refugees*. <http://burmanationalnews.org/burma/images/Documents/kmsislamizationofburma201109.pdf>. (검색일: 2012.11.10)
- Lieberman, Victor. 1978. “Ethnic Politics in Eighteenth-Century.” *Modern Asian Studies*. 12(3): 455-482.
- Maudood, Elahi K. 1987. “The Rohingya Refugees in Bangladesh: Historical Perspectives and Consequences.” *Refugees: A Third World Dilemma*. John Rogge, ed. New Jersey: Rowman and Littlefield.
- National Legislative Bodies. 1982. *Burma Citizenship Law*. <http://www.unhcr.org/refworld/docid/3ae6b4f71b.html>. (검색일: 2012.08.10)
- Phayre, Arthur P. 1967. *History of Burma Including Burma Proper, Pegu, Taungu, Tenasserim, and Arakan: From the Earliest Time to the End of the First War with British India*. 2nd Edition. London: Susil Gupta.
- Ragland, Thomas K. 1994. “Burma’s Rohingyas in Crisis: Protection of “Humanitarian”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Boston College Third World Law Journal*. 14(2): 301-336.
- San Tha Aung. 1979. *The Buddhist Art of Ancient Arakan*. Rangoon: Ministry of Education.
- Siddiqui, Habib. 2007. “Rohingya: The Forgotten People.” http://theamericanmuslim.org/tam.php/features/articles/a_long_history_of_injustice_ignored_rohingya_the_forgotten_people_of_our_t. (검색일: 2012.12.12)
- _____. 2011. *Muslim Identity and Demography in the Arakan State of Burma*. <http://ssrn.com/abstract=1949971>. (검색일: 2012.12.12)
- _____. 2012. *Rebuttal to U Khin Maung Saw’s Misinformation on Rohingya*. <http://www.rohingya.org/portal/index.php/scholars/65-nurul-islam-uk/292-rebuttal-to-u-khin-maung-saws-misinformation-on-rohingya.pdf>. (검색일: 2012.12.12)
- Smart, R. B. 1917. *Burma Gazetteer: Akyab District*. Volume A. Rangoon: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Burma.
- Smith, Anthony D. 1996.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 Smith, Martin. 1991. *Burma: Insurgency and the Politics of Ethnicity*. London and New Jersey: Zed Books.
- _____. 1994. *Ethnic Groups in Burma: Development, Democracy and Human Rights*. London: Anti-Slavery International.
- Spearman, H. R. 1880. *British Burma Gazetteer: In Two Volumes*. Vol. 1. Rangoon: Government Press.
- Thant Myint-U. 2006. *The River of Lost Footsteps: A Personal History of Burma*.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The Economist. 2012. "The Idea of Myanmar: Aung San Suu Kyi's Ethnic-Minority Problem." July 7. [http:// www.economist.com/node/21558256](http://www.economist.com/node/21558256). (검색일: 2012.11.03)
- Tun Tun Aung. 2007. "Introduction to Citizenship under Myanmar Citizenship Law." 『現代社會文化研究』 38: 265-290.
- Van Galen, Stephan. 2008. "Arakan and Bengal: The Rise and Decline of the Mrauk U Kingdom (Burma) from the Fifteenth to the Seventeenth Century AD." PhD. Dissertation. Leiden University.
- Yegar, Moshe. 1972. *The Muslims of Burma: A Study of a Minority Group*.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Yule, Henry and Burnell, A. C. 1985. *Hobson-Jobson: A Glossary of Colloquial Anglo-Indian Words and Phrases, and of Kindred Terms, Etymological, Historical, Geographical and Discursive*. Second Edi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